익산 나눔·기부곳간, 위기가구 돌보미 역할 '톡톡'

두달간 2400명 1억여원 어치 지원
코로나 시대 복지 플랫폼 자리매김
3억9000만원 어치 기부금품 모여

익산나눔·기부곳간이 기부와 나눔을 통해 마음을 연결하는 따뜻한 복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내 문을 연 '나눔곳간'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가구를 위한 최대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익산시가 전북지역 최초로 추진한 나눔곳간에서는 후원물품을 무료로 지급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생계 안정을 돕고 있다.

운영은 민관 협력 차원에서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 맡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시민이면 누구나 간단한 절차로 나눔곳간 이용이 가능하다.

나눔곳간은 긴급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눔곳간 운영 두달만에 2400여명의 시민이 도움을 받았다. 이들에게 지원한 물품은 1억2000만원에 달한다.

기부곳간에는 짧은 기간동안 많은 기부행렬이 이어지면서 지난 26일 기준 242건, 3억900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이 모였다.

익산시와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는 기부곳간에 생활용품과 식품을 기부해준 328곳의 시민, 단체, 기업 등에 감사 서한문을 보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위기에 처한 이웃을 위해 흔쾌히 나눔곳간에 온기를 채워준 기부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전히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익산 나눔곳간'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힘을 모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고 격려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익산 나눔곳간이 두달만에 2400여명이 이용하는 등 위기가구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남원시가 시민안전을 위해 방범용 CCTV의 확대 설치와 노후CCTV 교체 사업을 진행한다.

남원시, CCTV 정비… "안전사각지대 없앤다"

생활방범용 68대 신규·교체 설치

남원시가 CCTV통합관제센터의 눈인 폐쇄(CC)TV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범죄예방과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지역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노후된 CCTV까지 교체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6월까지 지리산IC 부근 등에 CCTV 차량방범용 14대와 범죄취약지역, 승사교 사거리 등에 생활방범용 68대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해 선명한 화질로 영상을 기록·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12명의 관제요원이 교대근무하면서 생활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놀이터 등 지역에 설치된 CCTV 950여대를 관제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재난 등을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종 재난이 없는 편안한 남원을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올 개화 시기 평년보다 일주일 빨라 반복되는 과수 저온피해 철저한 대비를"

전북농업기술원 과수농가에 당부

전북도농업기술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과수 저온 피해가 올해도 우려된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

전북농기원은 평년보다 과수 꽃이 일주일가량 일찍 필 것으로 예측되므로 4월 상순경 영하의 저온 도래 시 피해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전주지역 기준으로 3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약 2~3도 높았고,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의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배나무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인 4월 7~8일 전후로 배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기상청의 장기 전망을 보면 4월 이상저온 발생일수가 3일 정도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른 개화와 맞물려 저온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화기의 저온피해는 보통 영하의 온도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피해를 본 꽃의 씨방이 검게 변하면서 죽게 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기형이나 생리장해가 발생해 상품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저온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농가마다 상황에 따라 방상팬과 살수장치(미세살수 또는 포그식)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이같은 장치가 없는 경우는 화재 위험성이 낮은 자재를 활용한 연소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개화기 기상 상황을 주시해 야간 영하의 온도가 나타나는 시기에 적극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매년 피해가 심했던 지역은 사후 관리로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해 인공수분, 열매솎기 늦추기, 병해충 방제, 수세 회복을 위한 비료 살포 등을 해야 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정읍시, 민방위 교육·비상소집 훈련 온라인 진행

4~6월 중 1시간 동영상 교육
헌혈증 제출해도 교육 수료 인정

정읍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집합교육과 비상소집 훈련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 대상자 4800여명은 온라인으로 1시간 교육을 받으면 된다.

대상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동영상을 시청한 뒤 객관식 평가(재시험 가능)를 통해 7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수료 처리된다.

정읍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인원을 위해 서면 교육을 병행한다. 2021년도 헌혈증 사본을 주민센터에 제출해도 교육 수료로 인정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모든 광역·기초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하라"

전북참여연대, 가족까지 확대 촉구

지역 시민단체가 모든 광역·기초의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참여연대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전주시의회가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아들였다"면서 "다른 의회들도 더 지체하지 말고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참여연대는 "LH 사태는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의 뿌리 깊고 해묵은 특혜와 반칙에 의해 시민의 이익이 훼손돼 왔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시민들의 박탈감과 분노는 LH 사건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불법정보 이용 및 특혜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만으로 해소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조사 대상이 지방의원을 포함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은 시민들이 이것을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근본적인 사회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고창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전남대 등과 복분자 공동연구

복분자 이용 기능성 식품.

고창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는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전남대학교, 농업실용화재단 등과 함께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공모사업인 '지역농산물 원료 안정생산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연구소는 2년간 국비 5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복분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국산 종균을 이용한 복분자 식초의 상품화 기술개발 관련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복분자 고사율 감소를 위한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조직배양을 통해 복분자 세균 및 바이러스 무병주 대량생산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이후 농가 보급을 통해 고창의 특화작물인 복분자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는 복분자의 고품질 유지를 위한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과 복분자 미숙과를 이용한 기능성식품 개발, 국산 종균을 이용한 복분자 식초의 상품화 기술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